

# “월세 너 마저”... 전세 품귀현상에 치솟는 월세 가격

전세 못 구한 수요자, 월세로 시선  
전국 주택 월세가격 0.13% 상승  
전월세 전환율 하향에 시장 불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압구정동 등 일부지역에서 전세물건이 아예 소멸되는 등 품귀 현상이 확산되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이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시세가 오르고 있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3% 상승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만 해도 변동률이 월별 0.01~0.03%에 머물렀지만 6월 0.05%, 7월 0.07%, 8월 0.10%에 이어 9월 0.13%로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인천에서는 0.03%에서 0.14%로 한 달 새 상승폭이 0.1%포인트 확대됐고, 경기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도도 0.27%에서 0.33%로 변동폭을 키웠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면적 84.94㎡)는 9월 보증금 7억원, 월세 250만원에 계약됐다. 이 아파트는 8월 월세 215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대

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69㎡)는 9월에 보증금 3억원, 월세 80만원에 계약됐다. 이 면적형은 8월 보증금 2억 월세 94만원에 계약된 물건이다. 7월에는 보증금 4억원, 월세 60만원에 계약된 바 있다.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물건이

완전 실종됐다.

압구정동 현대5차(전용면적 82.23㎡)는 9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60만원에 계약됐다. 8월 보증금 3700만원, 월세 200만원에 계약된 이 면적형은 한 달 새 보증금 2300만원, 월세 60만원이 올랐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에 따르면 현재 압구정동은 전세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이 보증금을 5% 수준에서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든 게 주된 이유다.

강남 월세 수요자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외에도 전문직 종사자 혹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월세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도 올리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

르면 월세 비중은 6월 24.9%에서 7월 27.3%, 8월 29.3%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지난달 29일부터 4.0%에서 2.5%로 하향됐다.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으로 월세 물건마저 품귀를 빚으면서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최근 전월세전환율 하락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요가 더 늘었다”라며 “저금리 기조 외에도 전세물건이 자취를 감춘 데다 월세 물건 자체도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가계·비영리단체 순자금조달 규모 ‘역대 최대’

# 가계는 지갑 닫고... 정부 곳간은 비어간다

순자금운용, 지난해보다 40조 늘어  
코로나 소비위축 등 복합적 영향  
민간최종소비지출, 218.9조로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 가계는 지갑을 굳게 닫았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분기 중 자금순환’에 따르면 올해 4~6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6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조 원보다 40조 원이나 늘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올해 1분기 66조 8000억 원 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폭은 더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와 신규 주택투자 둔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기준으

〈경제부문별 자금운용·조달 차액 규모〉(분기중, 조원) /한국은행

	2019			2020	
	2/4P	3/4P	4/4P	1/4P	2/4P
국내	9.0	16.8	25.4	12.2	0.8
가계·비영리단체	24.0	16.6	23.9	66.8	64.0
비금융 법인기업	-15.3	-17.8	-13.9	-28.2	-29.1
일반정부	-0.2	16.4	13.6	-26.5	-37.9
금융법인	0.5	1.6	1.9	0.1	3.7
국외	-9.0	-16.8	-25.4	-12.2	-0.8

로 작년 2분기 403만 8000원에서 올해 2분기 430만 1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작년 2분기 227조 2000억 원에서 올해 2분기 218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자금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과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각각 49조 8000억 원, 21조 3000억 원이나 늘었다. 자금조달 금융기관 차입도 4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비금융법인(일반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2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조 3000억 원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9년 1분기(34조 8000억 원) 이후 11년래 최대치다. 수익성이 떨어

어진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결과다.

외감기업들의 총자산세전순이익률은 작년 2분기 4.32%에서 올해 2분기에는 3.78%로 낮아졌다. 예취기관 운전자금 대출금은 작년 2분기 14조 1000억 원에서 2분기 45조 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지출을 늘리고 이에 따른 국채발행에 나서며 순자금조달 규모가 37조 9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00억 원에 불과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NBP, 의료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고대의료원과 2년 걸쳐 검증작업  
고대안암병원 P-HIS 적용 눈앞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고대안암병원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7일 밝혔다.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의 핵심 업무 관련 시스템으로, 작은 장애가 발생해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시스템이다.

NBP는 고대의료원과 함께 2년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 작

업을 거쳤다. 시범사업 중 NBP는 안정적인 병원정보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의료 전용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 받으며 무사히 검증을 마쳤고, 이어서 연내 고대안암병원 적용 건도 맡게 되어 실제 P-HIS 첫 적용 사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상헌 P-HIS 사업단장(고대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연말에 고대안암병원 적용을 마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에 순차 배포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기반 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고대안암병원의 정밀의료병원정보시스템(P-HIS) 구축 건을 국내 첫 P-HIS 사례로 수주했다. /NBP

스템을 통해 복수의 병원이 함께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 전반적인 의료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다수의 중대형 병원에서도 현재 P-HIS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서윤 기자

## “지역기업 넘어 100년 글로벌 은행 도약”

임성훈 DGB대구銀 신임 행장 취임

임성훈 DGB대구은행 신임 행장이 7일 취임식과 함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제13대 대구은행장에 취임한 임 행장은 경영 철학으로 ‘A.B.L.E’를 내세웠다. ‘A.B.L.E’는 다각적 소통주의(All together), 철저한 성과주의(Best Performance), 냉정한 합리주의(Logical decision), 따뜻한 인본주의(Empathetic management)의 줄임말이다.

임 행장은 “은행경영의 기본 원칙 3가지인 ‘냉정한 합리성·철저한 성과주의·직원중심적 사고’를 바탕으로 신바람 나는 DGB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임기 중 중점적으로 개인·기업·공공금융 조화의 기본체력 강화, 자산 질적 개선과 지역별 차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3대 대구은행장 취임식에서 임성훈 신임 대구은행장이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취임식 이후 임 행장의 첫 행보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에 방점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을 방문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를 직접 찾아오랜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방문과 함께 대구 사회적 기업에서 제조한 쿠키와 제과 세트를 전달했다. /이영석 기자 ysl@

## 카카오스타일 빅데이터 기반 ‘개인화 추천 서비스’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개편

카카오커머스가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개인화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개편 준비를 마치고 7일 정식 오픈한다.

카카오스타일은 카카오톡의 ‘더 보기’ 탭과 모바일웹, 앱을 통해 운영되는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로, 특정 쇼핑물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인기 패션 아이템과 신상품을 모아서 직접 비교 및 구매까지 한 번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개편을 통해 카카오스타일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선보인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는 카카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과거 상품 클릭 정보/구매 내역/관심사

설정 등 고객이 카카오스타일을 이용하며 구축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세부적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들은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우선 노출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카카오스타일에 접속만 해도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본인 취향의 패션 상품을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카카오스타일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호 쇼핑물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새로운 트렌드를 동시에 쇼핑할 수 있는 종합 패션 서비스로 변화한다는 계획이며, 7일부터 개편을 기념해 다양한 브랜드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